해남, 땅끝 처음길에서 시작하세요 '스카이워크 개통'

해남군 땅끝마을에 41m 길이의 스카이워크가 개통했다.

군은 땅끝탑에서 시작하는 해안처음길의 중간 지점에 땅끝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스카이워크를 설치하고, 지난 23일부터 관광객들에게 무료 개방을 시작했다.

스카이워크는 육지에서 바다쪽으로 길이 41m, 높이 18m의 직선형으로 뻗은 형태로, 전 구간 강화유리를 사용해 땅끝바다를 직접 걸어보는 듯한 스릴있고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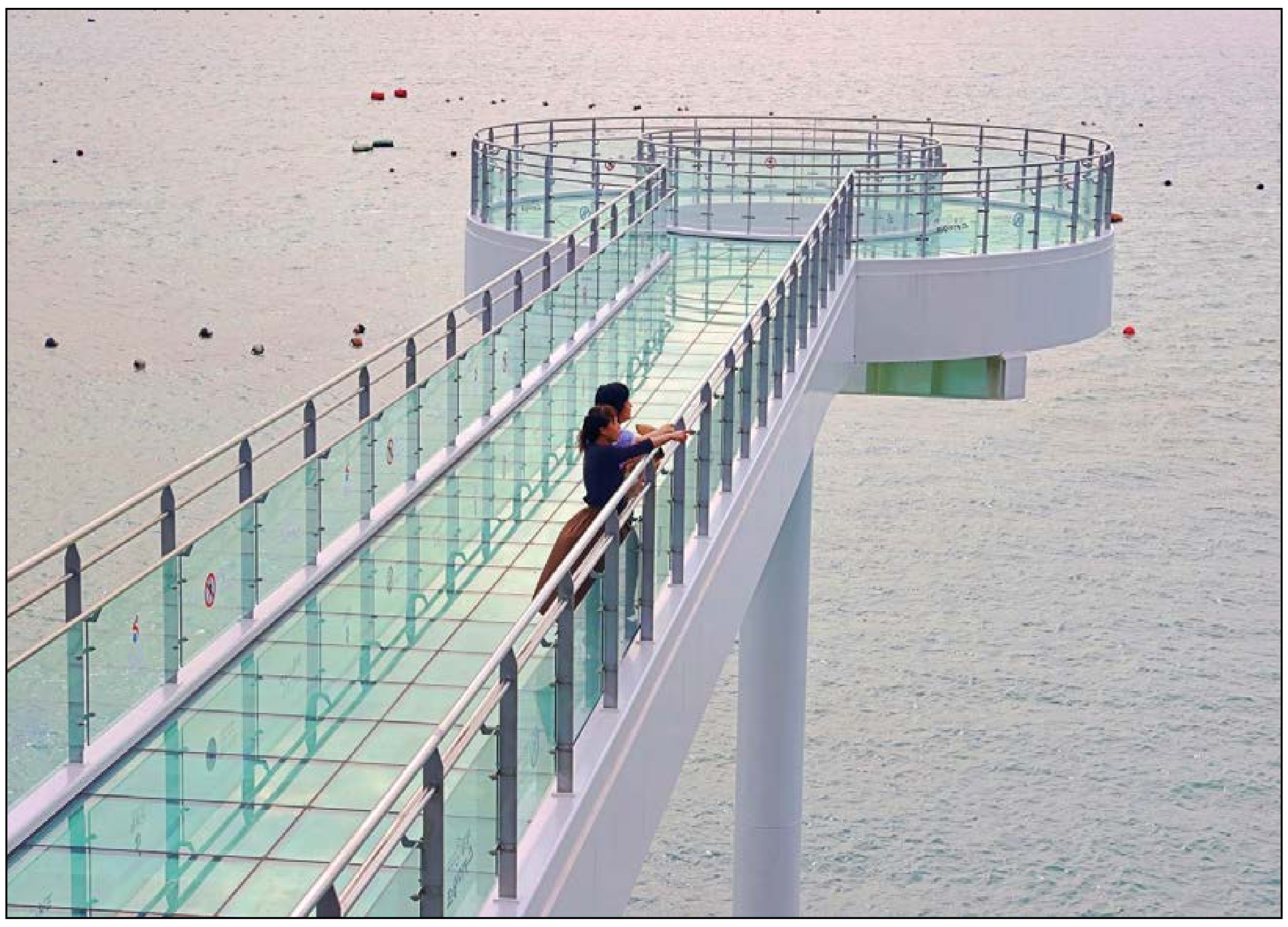
특히 스카이워크의 끝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서남해 바다의 탁트인 전망과 땅끝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땅끝마을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포인트가 되고 있다.

땅끝 일출과 일몰, 여객선, 어선 등과 어우러진 보석같은 다도해의 섬들을 조금더 가깝게 만나고, 땅끝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신비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새롭게 선보인 스카이워크는 땅끝 해안처음길 조성사업의 일부로 조성됐다. 땅끝 해안처음길은 땅끝마을의 해안 자연경관을 활용한 스카이워크 조성과 국토대장정을 시작하고 끝내는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국도77호선 노변 보행로 1.22km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스카이워크 진입로는 보행약자를 위해 경사로를 낮춘 보행데크 118m를 조성해 휠체어 등도 진입이 가능해 누구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열린 관광시설로 조성됐다.

군은 땅끝해안처음길 조성을 통해 한반도의 시작, 땅끝해남의 희망찬 이미지를 만들고, 국토순례 등 걷기 여행객들의 편의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스카이워크의 개장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우천시나 강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출입이 통제될 수 있다. /윤보현 기자



해남군 땅끝마을에 41m 길이의 스카이워크가 개통했다. 군은 땅끝탑에서 시작하는 해안처음길의 중간 지점에 땅끝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스카이워크를 설치하고, 지난 23일부터 관광객들에게 무료 개방을 시작했다. /해남군 제공

고흥 꽃향 석류 에이드 출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세븐일레븐,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고흥군 육성 석류품종 꽃향1호로 만든 편의점 음료 제품 '고흥꽃향 석류 에이드'를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음료는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2015년 등록한 석류 신품종 '꽃향1호'를 원료로 사용했다. '꽃향1호'는 생육이 좋은 조생종 품종으로, 과육과 과피의 색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빨간색이다. 당도(17.1브릭스)가 높고 신맛(산도 4.24%)이 적다.

고흥군은 전국 최대 석류 생산지로, 지난 2022년 기준 생산량은 275톤이며,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고흥꽃향 석류 에이드'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은 1천700원(용량 320㎖)이다. 출시 기념으로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구매 고객에게 얼음 컵을 무료로 증정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기관-기업-농가 간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국내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음료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종민 기자

완도군, 가볼 만한 곳 사진·UCC 공모전

완도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특색있는 관광자원,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 명소 등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발굴하고자 10월 31일까지 '완도 가볼 만한 곳' 관광 사진 및 UCC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 주제는 '내가 추천하는 완도 가볼 만한 곳'이다.

공모 대상은 완도 해양치유 체험, 지역 특산물(품) 체험, 한 달 살기 체험, 지역 문화 체험, 레저 활동, 축제·행사 체험, 숙박·음식 체험 등이며,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촬영한 미 발표작 사진 및 UCC이다.

출품 가능 수량은 사진은 1인·1팀당 3점 이내, UCC는 1인·1팀당 1점 이내이다.

대한민국 국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출품 가능하며, 완도군청 관광과 방문 접수 또는 우편(등기), 이메일(act9078@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 규모는 사진 분야는 대상 1점, 최우수 2점, 우수 8점, 장려 10점, 입선 30점, UCC는 대상 1점, 최우수 2점, 우수 3점, 장려 4점으로 총 61점을 선정한다.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은 11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2023년 '완도 가볼 만한 곳' 관광 사진 및 UCC 공모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관광 트렌드에 맞는 사진과 UCC를 선정해 관광 홍보 및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이번 '공모전 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10월 12일까지 공모전 포스터를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완도군 공식 SNS(페이스북) '희망 완도'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나영 기자

(재)보성군장학재단 하반기 장학생 선발

보성군은 (재)보성군장학재단(이사장 문찬오)이 미래의 희망인 지역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장학생을 10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본인 및 부모(친권자)가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교생과 대학생(대학생 본인은 타 지역 주소 인정)이다.

선발 분야는 성적 우수 80명, 보금자리 60명, 한울타리 55명, 아름드리 6명, 푸름꿈 9명 등 5개 분야로 총 2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은 해당 학교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선발은 선발 요강에 의거 해당 학교 및 읍·면사무소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재단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장학금은 10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장학생 선발 관련 사항은 재단 사무국(061-853-6948)으로 문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보성군청 및 보성군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재)보성군장학재단은 장학사업 이외에도 '제3회 수기 공모전'을 29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기금 기부자와 수혜자 간 소통의 창구가 될 장학회보 발간으로 장학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 /강종수 기자

진도,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 추천·접수

진도군이 지역을 빛낸 군민의 상 후보자를 추천·접수 받는다.

군은 오는 11월 1일 개최되는 제48회 진도군민의 날을 맞아 '진도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를 오는 10월 4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은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개발과 복리증진에 기여해 군민의 표상이 될 만한 개인 또는 단체이다.

이번 군민의 상은 ▲공공복리 ▲교육·체육 ▲관광·문화예술 ▲복지·환경 ▲지역개발 등 5개 부문으로 부문별 1명씩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는 오는 10월 중 엄중한 선정절차를 거쳐 '군민의 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제48회 진도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군민의 상 후보자 추천자는 읍·면장과 기관·단체의 장이며,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 서류는 읍면에서 교부받거나 진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총무과 서무팀(061-540-3236)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재평 기자

장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월 사랑의 광주리 나눔행사

장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길현종, 강경일)는 최근 사랑의 광주리 나눔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기탁금으로 마련한 밑반찬 3종(장조림, 젓갈, 물김치), 과일, 왕의기업 리얼스포츠에서 후원해 준 김, 기타 후원물품으로 요구르트, 쌀국수, 비타민을 담았다.

행사 당일 장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 분들이 거동불편 저소득 독거어르신 등 40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고 밑반찬과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길현종 장흥읍장은 "취약계층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두연 기자

호 소 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귀하!

국정에 여념이 없으신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합니다. 본인은 호남사학을 대표하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제3기 정이사 이문수입니다.

본인은 지난 3년여 동안 나름대로 조선대학교의 정상화와 대학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과 상식을 깨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조선대가 운동권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대학으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 없어 대통령님에게 대학을 정상화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부디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인 공정과 상식이 학교법인 조선대 학교의 이사회를 정상화해서 대학과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3년 5월25일에는 우려했던 대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설립자 측 이사 선임 몫마저도 자신들의 의도대로 찬탈해버리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설립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이사들로 채우며 운동권이 판을 치는 이사회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이사회가 파행과 비정상적인 판을 치는 학교법인 사무처에서 사용하는 법인 카드 4장을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 하고 있다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고 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상태로 이들은 법인의 비리를 감추는데 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조선대총장의 직인까지 도용해가며 임명을 강행하고 교육부에서는 김 이사장을 비롯한 동조자 4명의 불법행위에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현 이사장은 교육부로부터 감사를 받아 수차례 기관경고, 주 의 , 시정조치를 받았으면서도 사립학교법에서 금하고 있는 임원의 학사개입 금지 조항을 어기고 여전히 대학에 대한 학사개입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의 교수평의원회와 교수노동조합, 동문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제3기 정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본인은 그동안 김 이사장을 비롯한 운동권 비호를 받은 이사진들의 무수한 위법 행위를 바로 잡고자 2회에 걸쳐서 김 이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정보공개 등을 요청하며 왜곡된 이사회를 바로잡기위해 노력했으나 중과부족 상태에서 조선대이사회의 불법행위를 저지하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우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 이사장은 평생을 법조인으로 활동하며 법을 가장 잘알고 법을 누구보다도 더 지켜야 하는데도 사립학교법과 정관과 절차와 규정을 어기고 오히려 불법위에서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을 조롱하고 우롱하며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데 급급한 이들을 대통령님께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를 시급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또 교육부에서 관련 위법한 내 용에 대해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12

호소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제3기 정이사 이 문 수